

치앙마이에서 온 편지(8)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곳 치앙마이는 무더운 여름을 지나 우기에 접어들면서 자주 비가 내리다보니 더위가 한풀 꺾이고, 밤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학교가 방학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귀국을 한 상태여서 주일 예배시 빈자리가 많아졌고 사역도 제자훈련도 잠시 쉬어 가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치앙마이는 중국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조기교육과 해외이민을 꿈꾸는 중국인들에게 각광받는 도시가 되면서 중국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치앙마이에 있는 중국인 선교사들에게는 긍정적인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전도 사역에 매진하고, 개인양육과 훈련사역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 개인의 영성과 목회적 능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 여러분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던 몇 가지 사역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식입니다.

지난번 선교편지에서 기도부탁을 드렸듯이 4월 1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4명과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초신자 2명이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6명 중 3명이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했던 가정이 이곳 치앙마이에 와서 이웃의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기숙사 사역입니다.

기숙사 사역은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사역인데 드디어 지난 5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 사역은 태국선교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신자가 되고 불교의 영향력 아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졸업때까지 불교와 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사역은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국경은 예로부터 마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의 가정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마약을 하다 붙잡혀 감옥에 가고, 아이들은 할머니 손 아래서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 또한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손길에 빠져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한 현지 전도사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곳의 아이들을 치앙마이 도시로 데려와서 기독교 신앙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도 비록 중국인 교회 사역을 하지만 기숙사 사역에 대한 부담이 있던 차에 아는 선배 선교사님의 소개로 이 현지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태국 국경 근처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던 운남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이 이 사역에 대한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서 현지 전도사와 함께 기숙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매일 방과 후 교회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주일에는 오전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배우고 중국어로 찬양을 배워 특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곳 기숙사에 있는 동안 확실한 믿음과 성령 체험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번째, 주은교회 중문부 사역입니다.

매월 첫 주 성찬식, 월 2회 설교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제자훈련 차원에서 새가족반, 확산반 소그룹을 인도하고, 매주 목요일 기도회 찬양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두 가정이 이곳을 떠나게 되어 사역의 공백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두 가정을 보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시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읽기와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 큐티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는 않지만 성경읽기는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동부와 청소년부도 새롭게 단장하면서 담당 사역자를 배정하고, 교재 구입 및 새로운 교사 확보를 통해 자녀들 신앙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 벌써 2023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과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말씀연구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성령충만하여 능력있게 사역 감당하도록
2. 교회 사역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3. 주은교회 중문부가 부흥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023년 7월 12일

문은석선교사 드림